

## 함안 성산산성 출토 부찰목간의 지명 및 인명 기재방식과 서식

A Study on the form of text written on the wooden tablets excavated from the Seongsan Mountain Fortress in Haman;  
Focusing on the records of Place and People

---

저자 (Authors)	홍승우 Hong, Sueng-woo
출처 (Source)	<a href="#">목간과문자 22</a> , 2019.6, 77-96(20 pages) <a href="#">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22</a> , 2019.6, 77-96(20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목간학회</a>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49616">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49616</a>
APA Style	홍승우 (2019). 함안 성산산성 출토 부찰목간의 지명 및 인명 기재방식과 서식. 목간과문자, 22, 77-9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0:2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함안 성산산성 출토 부찰목간의 지명 및 인명 기재방식과 서식

홍승우\*

- I. 머리말
- II. 지명 기재방식과 복수 지명
- III. 노인목간과 복수 인명의 관계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찰목간의 용도와 그것이 부착되어 있던 짐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부찰목간들의 기재방식과 그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특히 지명과 인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출토 사례가 많고 관련 정보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 구리별 지명목간, 통칭 구리별목간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성산산성 출토 부찰목간의 지명은 대체로 ‘대단위지명(城)+소단위지명(村)’이 일반적인 서식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여러 구리별목간이 대단위지명은 표제처럼 크게 기재되는 서식을 가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목간에 적힌 지명은 뒤에 나오는 인명의 貫籍地로 생각되지만, 구리별목간의 기재방식을 고려하면, 적관지를 상위행정단위를 포함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이해하기 힘들다. 성하목간의 서식을 참고하면, 짐들의 집결지 내지 발송처로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 구리별목간 중 소위 노인목간으로 분류되는 것들을 포함한 복수 인명의 경우, 이 둘이 대등한 성격의 정보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짐과 관련있는 직접적인 인물은 뒤에 나오는 인명이고, 앞사람은 더 앞의 지명과 함께 뒷사람에 대한 정보로서 적힌 것이라 추정된다. 아마도 호주의 이름으로서, 장부와 대조하여 짐 주인의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결론적으로 성하목간과 구리벌목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산산성 부찰목간에서 지명과 인명은 짐과 관련된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로서 기재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대단위지명+소단위지명+호주명+인명’의 서식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대단위지명은 짐이 성산산성으로 이동하기 전의 집결지 혹은 발송지점으로 이해된다.

▶ **핵심어: 성산산성, 부찰목간, 서식, 구리벌목간, 노인목간**

## I. 머리말

1991년에서 2016년까지 총 17차에 걸쳐 진행된 함안 성산산성(사적 제67호) 발굴조사에서 245점에 달하는 신라목간이 출토되었다.<sup>1)</sup> 이들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이하 성산산성 목간으로 칭함)은 한국 목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라 평가될 정도로 주목받아 왔다.

그간 성산산성 목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sup>2)</sup> 성산산성 목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sup>3)</sup> 짐에 부착된 부찰목간에 특히 연구가 집중되었다.<sup>4)</sup> 초기 연구들에서는 이 부찰목간을 名籍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지만,<sup>5)</sup> 대체로 어떠한 물품들을 담은 짐에 매달아 놓았던 목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 짐은 성산산성 축조나 활용시 동원되었던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던 물품이라고 파악되어 왔다. 다만 이들 부찰목간은 짐들이 성산산성에 도착하기 이전에 각 지역에서 해당 지역민들에게 세물을 수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그 세물들이 성산산성으로 이동해 온 뒤 폐기되었기 때문에 성산산성에서 출토되었다고 이해되어 왔다. 즉 稅物에 부착되어 있던 목간으로 보는 것이 통설에 가깝다고 하겠는데, 이

---

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韓國의 古代木簡Ⅱ』, pp.496-510에 전체 목간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본고의 목간번호는 이 책의 것이다(이 책은 이하에서 「고대목간Ⅱ」로만 기재한다).

2) 성산산성 목간 연구들의 현황에 대해서는 李京燮, 2003, 「咸安 城山山城 木簡의 研究現況과 課題」, 『新羅文化』 23; 전덕재, 200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新羅文化』 31; 주보돈, 2008, 「한국 목간 연구의 현황과 전망」, 『木簡과 文字』 創刊號; 이경섭, 2013,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 연구의 흐름과 전망」, 『木簡과 文字』 10; 윤선태, 2016, 「한국의 고대 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선사와 고대 목기·목간의 최신 연구 현황과 과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복천박물관; 윤선태, 2017,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의 연구 성과와 전망」, 『韓國의 古代木簡Ⅱ』,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홍승우, 2018, 「함안성산산성 목간의 물품 기재방식과 성하목간의 서식」, 『木簡과 問字』 21 등을 참고할 것.

3) 전체 245점의 목간 중 부찰목간은 224점 정도로 파악된다(홍승우, 2018, 앞의 논문, p.80).

4) 그간 성산산성 목간 중 물품에 부착되었던 것을 통상 荷札木簡이라 불려왔다. 그러나 하찰목간이라는 용어는 일본 목간연구에서 통용되는 이름으로, 稅物이라는 특정한 짐에 부착된 목간을 지칭한다(馬場基, 2008, 「古代日本の 荷札」, 『木簡과 文字』 2, p.148). 아직 성산산성 목간이 부착되었던 짐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하찰목간으로 칭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하찰목간 대신 부찰목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한다.

5) 김창호, 1998,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에 대하여」, 『咸安 城山山城Ⅰ』,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朴鍾益, 2000, 「咸安 城山山城 發掘調査와 木簡」, 『韓國古代史研究』 19; 주보돈, 2000,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의 基礎的 檢討」, 『韓國古代史研究』 19.

는 목간들에 기재된 내용이 물품을 납부한 측에 대한 정보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런데 최근 짐들이 성산산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작·사용된 것이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sup>6)</sup> 이는 기존 통설과 달리 목간에 기재된 정보가 물품을 받는 사람 혹은 사용자와 관련한 것이라 파악하는 입장이다.<sup>7)</sup> 이러한 신설들의 제기는, 목간이 부착된 짐의 성격이 세물이라는 통설에 대한 전면적이고 정밀한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제 작업으로서 목간의 기재 내용 자체에 대한 면밀한 고찰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필자는 그 작업의 일환으로 성산산성 부찰목간의 물품 기재방식을 분석하여 성산산성 목간의 일반적 인 서식을 복원해 보고, 그 물품 기재방식의 특징으로서 물품과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성산산성 부찰목간은 대단히 정형화된 물품, 곧 1石이라는 정량의 곡물을 담은 짐에 부착되었던 것이라 추정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일반적인 것과 다른 특수한 서식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어 온 소위 ‘城下(麦)木簡’(이하 성하목간)의 서식 역시 여타 목간들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sup>8)</sup> 이는 성산산성 부찰목간이 비슷한 성격의 짐들에 매어두었던, 거의 동일한 목적을 가진 목간이었을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기본적으로 물품 기재방식만을 분석한 것이다. 성산산성 부찰목간들에는 물품 관련 정보 이외에도 ‘지명’과 ‘인명’의 두 요소가 대부분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생략되는 경우도 많았던 물품 관련 정보들과 다르게 거의 모든 목간에 빠짐없이 기재된 요소들이다. 즉 물품보다 더 필수적인 정보였다고도 할 수 있다.<sup>9)</sup> 지난 논고에서의 추정들, 곧 성하목간이 특수한 서식이 아니며 대부분의 부찰목간은 동일한 서식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들 정보의 기재방식 및 그 특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산산성 부찰목간의 기재방식과 서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하려 한다. 그중에서도 지명과 인명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고 다양하게 기재된 소위 ‘구리별 지명 목간’(이하 구리별목간)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 작업이 필자의 지난 논고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성산산성 목간의 성격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6) 박남수, 2017,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新羅史學報』 40; 이재환, 2018,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荷札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 『韓國史研究』 182.

7) 박남수의 경우 입역자들이 스스로 마련한 식량으로 파악하므로, 이 물품의 납부자로 파악하는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적혀진 정보들이 납부자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사용자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보았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같이 분류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8) 홍승우, 2018, 앞의 논문.

9) 성산산성 부찰목간 중 상당수는 물품명과 그 양이 생략되어 있다. 이는 물품 정보는 생략해도 무방할 정도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 II. 지명 기재방식과 복수 지명

성산산성 목간은 성산산성의 발굴조사 원료와 함께 전체 목간들이 『고대목간Ⅱ』로 종합 정리되었고, 그중 부찰목간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sup>10)</sup>

- ① 年月荷札 : 가야4686(三月中/②서식포함), 가야2639(正月中) 가야5599(壬子年/③서식포함)
- ② 城下荷札 : 대단위지명(城)+下(+곡물+양)+소단위지명+인명+곡물+양
- ③ 地名人名荷札 : [지명(城)+지명(村)+인명[+負·發 or (곡물)+양] - 가장 많은 유형
- ④ 人名荷札 : 인명[+負·發 or (곡물)+양]
- ⑤ 地名荷札 : 지명[+負 or (곡물)+양]

이 중 ①은 그 사례가 극히 드물고 주변국들의 사례와 달리 가장 앞에 나오기 때문에,<sup>11)</sup> 이를 하나의 특수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성하목간의 서식을 통해 볼 때 원래는 들어가야 하는 정보이지만 주로 생략했다고 파악할 수 있으므로,<sup>12)</sup> 이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한다.

③이 가장 많은 사례를 보여주는 유형으로, 물품 정보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부찰목간에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는 '지명'과 '인명'임을 알 수 있다. ④, ⑤는 둘 중 하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③과 다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혹은 그중 한 요소가 생략된 것에 불과한지는 ③서식에 대한 분석이 끝난 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할 문제이다.

우선 가장 많은 사례인 ③ 유형에 대한 검토가 성산산성 부찰목간의 서식 내지 형식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출토예가 많으면서도 비교적 여러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어, 그간 많이 주목하고 연구해 온 구리벌목간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필요한 경우 다른 사례를 아울러 비교·검토하려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먼저 구리벌목간의 판독문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3)</sup>

10) 윤선태, 2017, 앞의 논문, pp.485-486.

11) 중국의 사례는 722년 호탄에서 당으로 보낸 수취물에 달려 있던 목간을 통해 알 수 있다. "(1면)拔伽不邊俱 送小麥參碩貳斗 開元十年八月四日 典 (2면)何仙 官張並 相惠"(榮新江·文欣, 김창석 역, 2015, 「새로 발견된 漢字-호탄 문자의 이중언어 목간」, 『江原史學』 27, p.153)와 같이 '지명+인명+送, +물품(小麥)+양+연월일+담당관리'의 형식으로, 날짜가 뒤에 나온다. 일본도 '지명(國郡鄉里)+인명(호주)+세목+물품+양+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다(烟中彩子, 2018, 「목간群으로서의 성산산성 목간」, 『木簡과 文字』 21, p.185).

12) 홍승우, 2018, 앞의 논문, p.90.

13) 본고에 사용된 판독문은 기본적으로 『고대목간Ⅱ』의 것을 따르며, 사용된 부호도 대부분 『고대목간Ⅱ』 p.16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독성 등을 위해 일부 기호를 다음과 같이 바꾸었다. 판독불능자=■, .....=묵흔은 있지만 글자 수를 알 수 없는 경우, [ ]=注雙行 형식, / =注雙行에서 행 바뀜 기호.

표 1. 구리별목간 일람

목간번호	판독문	서식
진주1263	× 仇利伐[上多者村 波婁]	지명+지명+인명
가야33	「仇利伐[上多者村 波婁]V」	지명+지명+인명
김해1275	(1면)「仇利伐[上多者村]	지명+지명+인명
	(2면)「乞利」	
가야5589	「仇利伐[上多者(村) 〰〰〰〰]V」	지명+지명+인명(추정)
가야2001	「仇〰〰 [....智]◎」	지명(판독불능)+인명(판독불능)
김해1287	「仇利伐[仇陴余一伐/余利〰(負)]V」	지명+인명+인명+負
가야32	「仇利伐[彤谷村/仇礼支負]V」	지명+인명+인명+負
가야2627	(1면)「仇利伐V」	지명+지명+인명+負
	(2면)「〰(伐)多〰村伊面於支負V」	
가야2034	「仇利伐 [習彤村/牟利之負]V」	지명+지명+인명+負
가야2036	「仇利伐今余次負V」	지명+인명+負
가야2619	「仇利伐記本礼支負V」	지명+인명+負
진주1288	「仇利伐 〰德知一伐奴人 〰 ×	지명+인명(관등)+노인+인명(추정)
가야35	「仇利伐 [只卽智奴 於支負] V」	지명+인명+노+인명+負
가야1613	「仇(利)伐 [比夕智 奴 先能支 負] ◎」	지명+인명+노+인명+負
가야2012	「仇利伐 仇陴知一伐奴人 毛利支負V」	지명+인명+노+인명+負
가야1989	× ...(-一伐)奴人 毛利支負V」	지명+인명+노+인명+負
가야2008	「仇(利)伐 [郝豆智奴人/〰支負] V」	지명+인명+노+인명+負
가야5593	「仇利伐[夫(及)知一伐奴人/宍巳礼負]V」	지명+인명+노+인명+負
가야5592	「丘利伐 [卜今智上干支 奴 / 〰〰巳支 負] V」	지명+인명+노+인명+負
가야1999	「〰〰伐 [〰〰只〰/〰伐支負]V」	지명+인명+노(추정)+인명(추정)+負
가야1596	「仇利伐[(不夫).....] V」	지명+지명(추정)(이하 판독불능)
가야2620	「仇〰伐 ..... ◎」	지명(이하 판독불능)

구리별목간은 최상단에 대단위지명 仇利伐이 큰 글씨로 적혀 있고,<sup>14)</sup> 나머지 정보들을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두 행을 나누어[注雙行 형식] 적거나 뒷면에 적는 다소 특이한 형식으로 되어있다(사진 1~4). 또 ‘인명+노(인)+인명+負’ 형식이 다수 나와 ‘奴(人)’의 성격과 실제 및 負의 의미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이런 특징적인 형식 때문에, 직접 구리별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아도, ‘인명+노(인)+인명+負’ 서식의 목간이면, 결손 등의 이유로 인해 전체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리별목간으로 추정하는 경

14) 가야5592에서 丘利伐로 표기된 사례도 있다.

우가 많았다.<sup>15)</sup>

그러나 다른 지역인 仇伐(丘伐) 지역명 목간(이하 구별목간)들에서 비슷한 형식이 확인되므로,<sup>16)</sup> 유사한 형식을 모두 구리별목간으로 추정하기 힘들어졌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리별 지명이 등장하거나, 일부 남아있는 지명이 구리별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리별목간으로 정리하였다. 이들 구리별목간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서식으로 나눌 수 있다.

(A) 仇利伐(대단위지명)+[~村(소단위지명)]+인명(+負)

(B) 仇利伐(대단위지명)+[~村(소단위지명)]+인명+奴(人)+인명(+負)

(B)유형은 인명 기재 방식에서 특별한 사례이므로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 이 장에서는 (A)유형을 분석한다. 마지막의 負는 구리별목간에서 단독으로만 사용되지만, 성하목간의 형식 분석에서 확인했듯이, 뒤에 '물품명+양+~之'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sup>17)</sup> 이는 유사한 형식의 仇伐(丘伐) 목간들에서 負 대신 稗石이 있는 것을 통해서도 방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 구별목간 일람

목간번호	판독문	서식
김해1272	「仇伐干好(津)村卑尸稗石◎」	지명+지명+인명+稗+양(1석)
가야50	「仇伐阿那舌只稗石×」	지명+인명+稗+양(1석)
가야1987	(1면)「仇伐未那 沙刀(礼)奴▽」	지명+인명+奴+인명+稗+양(1석)
	(2면)「弥次(分)稗石▽」	
가야5587	(1면)「丘伐未那早尸智居伐尺奴」	지명+인명+奴+인명+稗+양(1석)
	(2면)「能利智稗石」	
가야2018	(1면)「▽仇伐阿那内 鬮買子」	지명+인명+子(추정)+인명++稗+양(1석)
	(2면)「▽一支買 稗石」	
가야1988	「丘伐稗」	지명+稗
가야2029	「▽丘伐稗石」	지명+稗+양(1석)

15) 기존 연구들에서는 김해1277(× 前谷村 阿足只(負) ×), 가야35(「内恩知 奴人 居助支 負▽」), 가야36(× 内只次奴 須礼支負▽), 가야37(× 比鬮須奴 / 余先利支負▽), 가야1616(× 末甘村/借刀利(支) 負◎), 가야1994(「真尔密奴那智石▽」) 등을 구리별목간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전덕재, 200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木簡과 文字』 3; 이정섭, 2013, 앞의 논문).

16) 가야1987(「仇伐未那 沙刀(礼)奴▽」, 「弥次(分)稗石▽」), 가야5587(「丘伐未那早尸智居伐尺奴」, 「能利智稗石」)

17) 홍승우, 2018, 앞의 논문, pp.9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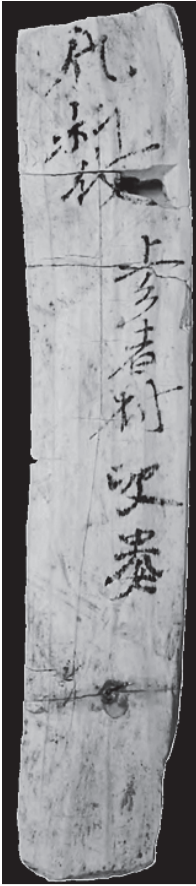


사진 1. 진주1263 적외선 사진(『고대목간II』, p.428)



사진 2. 김해1275 적외선사진(『고대목간II』, pp.444-445)



사진 3. 김해1287 적외선사진(『고대목간II』, p.458)



사진 4. 가야2627 적외선사진(『고대목간II』, pp.332-333)

구리별목간의 또 다른 특징은 대단위지명이 마치 표제처럼 앞에 큰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이다(사진 1~4).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진주1288, 가야2036, 가야2619), 대체로 이러한 형식은 지켜지고 있는데, 대단위지명과 그 아래 내용을 구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이러한 형식을 볼 때, ‘구리별+소단위지명’ 형식이 단지 정확한 행정단위 표기를 위해 ‘상위행정단위+하위행정단위’로 적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겠다.<sup>19)</sup>

구리별이 뒤에 나오는 소단위지명과 구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성하목간의 대단위지명인 ‘~城’

18) 대부분의 구리별목간이 모든 내용을 같은 크기로 기재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재방식을 취한 것은, 구리별이 그 아래 내용을 포괄하고 관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 생각된다.

19) 통상 복수 지명이 나올 경우 앞을 대단위지명, 뒤를 소단위지명으로 파악하고 행정상 상하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성하목간의 ‘~城과 그 아래 ‘~村’은, 그 사이에 ‘하(맥)’이 기재되어 있어, 단순한 행정단위의 전체 표기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구리별목간 역시 구리별을 크게 앞에 기재하는 형식의 표기를 통해 동일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곧 구리별 목간은 형식상 성하목간은 아니지만, 성하목간과 동일한 서식을 가졌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진지성 지명 목간(이하 이진지목간)의 사례를 통해서도 방증할 수 있다.

표 3. 이진지목간 일람

목간번호	판독문	서식
가야2025	(1면)「夷津支城下麦王[ ]已玆兮村」	지명+하맥+지명+인명+양(2석)
	(2면)「弥次二石」	
가야2058	(1면)「夷(津)支(城)下麦烏列支負」	지명+하맥+인명+부+(판독불능)+양(석)
	(2면)「[ ](二)石」	
가야2011	(1면)「夷津支士斯石村末[ ]然」	지명+지명+인명+맥
	(2면)「麦」	

가야2025와 2058은 성하목간이다. 그에 비해 가야2011은 마지막 물품명 부분이 麦으로 되어 있는 것만 제외하고 구리별목간과 동일한 서식이다. 가야2025에서 마지막의 2석은 물품명 맥이 앞에 나왔기에 생략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야2011은 물품명이 뒷부분에 麦으로 적시되고 반대로 伊津支 다음에 와야 할 ‘下+물품명’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또 성하목간들(가야2025, 2058)이 통상적인 사례와 다르게 二石이어서 양을 적시한 것과 달리, 가야2011은 통상적인 양인 1석이어서 양 기재는 생략했다고 추정된다. 결국 세 이진지목간은 동일한 서식의 목간을 추정되며, 이를 통해 ‘下麦’이 없지만 구리별목간 역시 기본적으로 성하목간과 같은 서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sup>20)</sup>

아울러 대단위 지역명과 소단위 지역명이 나오는 일련의 부찰목간들, 곧 구별목간(김해1272), 고타목간(진주1283, 가야28, 가야30, 가야1623, 가야1991, 가야1992, 가야1995, 가야1998, 가야2006, 가야2014, 가야2019, 가야2636, 가야4685), 추문목간(가야38, 가야52, 가야2033) 등도 동일한 서식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상과 같은 추정이 타당하다면, 성산산성 부찰목간의 ‘대단위지명+소단위지명+인명’ 형식의 기재 내용이 단순히 인명이 속한 곳 곧 거주하며 호적이 등재된 곳의 상위행정단위와 하위행정단위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겠다. 일반적으로 두 지명의 관계를 행정단위의 영속관계로서 ‘군-촌<sup>21)</sup>’

20) 성하목간이 물품 기재방식에서 여타 목간들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을 논증한 바 있는데(홍승우, 2018, 앞의 논문, pp.86-93), 그렇다면 구리별목간 역시 성하목간과 대동소이한 서식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21) 김재홍, 2005, 「함안 성산산성 목간과 촌락사회의 변화」, 『國史館論叢』 106; 李鉄勳, 2007, 「新羅 中古期 행정촌·자연촌 문

은 ‘행정성·촌-자연촌’<sup>22)</sup>으로 파악하였고, 인명의 거주지이자 貫籍된 하나의 지명으로 보았다. 해당 인명의 표기법이 ‘상위행정단위+하위행정단위+이름(+관등)’이라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구리별목간이 성하목간의 지명기재 방식과 동일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면, 구리별은 단순한 상위행정단위명이 될 수 없으며, 성하목간의 ‘성’과 유사한 성격으로 이해해야 한다.<sup>23)</sup> 즉 구리별이 인명의 거주지(관적지) 기재상 지명이라는 성격 이외에, 목간이 부착된 집의 최종 종착지 내지 발송을 주관하는 곳을 보여주기 위해 앞에 기재되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더하여 이 구리별목간이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점을 볼 때, 최종 목적지일 수는 없고 발송을 주관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sup>24)</sup>

구리별목간에서 작은 글씨가 2행으로 기재되지 않은 진주1288, 가야2036, 가야2619와 이진지성하목간인 가야2058은 모두 소단위지명이 없는 서식을 가진 것들로, ‘대단위지명(仇利伐, 伊津支城)+인명’만 기재되어 있다. 이들이 소단위지명을 인명 앞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仇利伐(성·촌) 거점에 거주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들 사례와 같이 하나의 지명만이 인명 앞에 나오는 경우는 성산산성 하찰목간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된다. 陽村(가야42, 가야1597), 買谷村(가야1598, 가야2051), 上莫村(김해1271, 가야43), 上弗刀弥村(가야31, 가야2054), (小)伊伐支村(가야74, 가야1993, 가야2024, 가야61, 가야2027), 市夫支城(가야2009, 가야2021, 가야5591), 陳城(김해1282, 가야40)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들이 모두 구리별이나 이진지 같은 대단위지명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이와 같은 서식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소단위지명인데 대단위지명은 적지 않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대단위지명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sup>25)</sup> 특히 陽村 같은 경우 이것이 대단위지명, 곧 행정 거점(군이나 행정촌)의 이름일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이는 ‘대단위지명+소단위지명+인명’이라는 인명 표기 방식에서 대단위지명이 생략된 표기방식이라 하겠다. 이런 생략이 가능한 것은, 이 인물의 거주지(관적지) 표기에 대단위지명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sup>26)</sup> 목간에 기재된 내용의 원출처가 되는 장부 혹은 목간 기재내용과 대조하여 확인하기 위한 장부, 곧 호적이나 그에 바탕을 둔 計帳 등이 대단위지명 단위로 작성 혹은 정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장부

제의 검토-城山山城 木簡과 「冷水里碑」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48.

22) 尹善泰, 2002, 「新羅 中古期の 村과 徒-읍락의 해체와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研究』 25(2004, 「한국고대중세 지방제도의 체문제」, 집문당); 전덕재, 2007,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내용과 중고기 신라의 수취체계」, 『역사와 현실』 65.

23) 홍승우, 2018, 앞의 논문, p.90.

24) 그간 통설에서는 대단위지명을 ‘군’ 혹은 ‘행정촌’으로 파악하면서 이곳이 이 집의 물품을 납부한 사람의 관적지이면서 동시에 세물이 납부되어 집적된 곳으로 파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목간에 기재된 정보로만 볼 때, 집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성하목간과 구리별목간이 동일한 서식이라고 볼 수 있다면, 대단위지명은 이 집이 집적되는 곳으로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성산산성으로 발송되는 지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물품 주인의 관적지로서 혹은 물품이 납인된 곳으로서 기재된 것이 아니라, 물품이 발송되는 지점으로서의 성격이 우선된다고 할 수 있다.

25) 박현정, 201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개요」, 『木簡과 文字』 21, pp.41-44에서도 이 지명들 상당수를 자연촌, 곧 소단위지명으로 파악하였다.

26) 물품에 대한 정보가 생략되었던 이유와 비슷할 것이다.

자체에 개인별로 대단위지명이 적혀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기재방식이 목간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성산산성 목간보다 늦은 시기의 것이기는 하지만, 조세수취를 위한 장부라 할 수 있는 〈新羅村落文書〉의 내용에 의하면, 신라는 縣 이하의 말단 단위인 村 별로 計烟을 산출하였는데, 이는 村 단위로 수취가 집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 경우 戶 혹은 개인이 낸 세물에 부착될 목간에는 村명 정도만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7)</sup> 다만 개별(자연)村에 세물의 보관과 활용을 위한 창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창고가 있는 거점으로 운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그 거점이 바로 상위의 행정단위, 예컨대 현에 있다면, 여전히 촌명만 쓰거나 현명까지만 적시하면 된다. 군이라면 현-촌, 혹은 군-현-촌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상위 행정단위 밖 별도의 최상위 행정단위나 중앙에 납입된다면, 그 행정체계상의 모든 단위를 적을 필요가 있겠다.<sup>28)</sup>

결국 대단위지명은 기본적으로 관할 하의 하위행정단위들의 세물이 집적되는 창고의 소재이자, 성산산성으로 운반되는 화물들의 출발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sup>29)</sup> 성·촌에서 세물인 곡물이 보관되었고, 이곳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사용처로 반출되는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대단위지명이 기재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sup>30)</sup> 그렇다면 소단위지명만이 기본적으로 인명에 부기되어 기재되는 정보, 아마도 주거지이자 호적이 등재된 곳일 것이다. 목간에서 인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명은 일단 소단위지명만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소단위)지명+인명(+물품)’ 서식 목간(이하 소단위지명목간)은 (A)유형 목간과 어떤 차이가 있

- 27) 중국의 사례를 보면 종이로 적장문서를 작성하는 5호 16국시대 이후에는 적장류 문서에 호주의 적관을 ‘某郡 某縣 某鄉 某里’와 같이 기재한다(朴根七, 2015, 『前秦建元20年(384)籙』과 호적 기재양식의 변천-4~10세기 서북지역출토 호적류 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31). 그러나 목간을 사용하던 진대 호적류 문서에는 호주의 적관을 ‘謀里’로만 표기하고 있어 차이를 보여준다(尹在碩, 2011, 『秦·漢初의 戶籍制度』, 『中國古中世史研究』 26).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서사 공간이 좁은 목간에 문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적장문서가 집적되고 보관되는 행정단위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백제 적장문서목간인 『궁남지315목간』도 西部後巷으로만 기재되어 있고(홍승우, 2015, 『목간 자료로 본 백제의 籙帳 문서와 수취제도』, 『韓國古代史研究』 80, p.120), 『북암리목간』은 村만 보이고 있다(홍승우, 위의 논문, p.128).
- 28) 당대 호탄 지역의 하찰목간을 보면 세물 납부자와 관련한 행정단위를 당으로 치면 鄉 단위 정도로만 적고 있다. 이는 변경의 이종족 거주지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참고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같은 安芸國의 하찰이지만 도성인 후지와라궁 유적에서 나온 것은 국명까지 갖추어져 있는데 비해[安芸國安芸(郡)倉橋部(名代)調(塩)三斗(<http://mokkanko.nabunken.go.jp/ja/6AJAUE290110>)], 安芸國分寺 유적에서 나온 목간은 郡까지만 기록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沙田郡(郷)米五斗(<http://mokkanko.nabunken.go.jp/ja/6AKBMBKG0011>)].
- 29) 행정거점에 곡물인 세물, 곧租를 모아 보관하는 창고가 있고, 그곳에서 다른 지역 내지 어떤 개인을 위해 운반했던 것은 『三國遺事』 卷2 紀異2 孝昭王代竹旨郎條의 “富山城倉直…時有使吏侃珍 管收推火郡能節租三十石 輸送城中”이라는 문장에 잘 드러난다. 또 같은 책 卷3 塔像4 臺山五萬真身條의 “長年供費 每歲春秋 各給近山州縣倉租一百石” 및 『三國史記』 列傳 金庾信傳下的 “南城租”, 強首傳의 “新城租一百石”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곡물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다음 율령 조문이 참고된다. 『천성령 복원 당초고령19(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 2006,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 下冊』, 中華書局, p.495), “諸給糧祿 皆以當處正倉充 無倉之處 則申省 隨近有處支給 又無者聽以稅物及和羅屯收等物充”
- 30) 박남수는 대단위지명에서 소단위지명으로 맥을 내려준 것으로 보았다(박남수, 2017, 앞의 논문, p.56).

을까.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성산산성으로 반출되기 이전, 곧 대단위지명 소재 창고에 납입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다. 둘째는 (A)유형과 같으나 대단위지명을 어떠한 이유로 생략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후자 쪽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찰목간에서 정보가 생략되는 경우는, 그것이 생략되어도 짐의 발송·운반·납입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대단위지명+소단위지명+인명’이 기재되어야 하지만, 대단위지명의 창고에서 한꺼번에 나가는 일련의 하물들에 부착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몇몇 짐의 부찰목간에 대단위지명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나머지 목간들에서 그 정보가 없어도 큰 문제가 아닐 것이기에, 소단위지명 목간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정해 본다.<sup>31)</sup>

### III. 노인목간과 복수 인명의 관계

다음으로 복수 인명이 기재된 부찰목간의 서식과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자. 구리별목간에는 인명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서식이 있다. 앞서 정리한 구리별목간의 서식 중 (B)의 ‘인명+노(인)+인명’이 그것으로 하나의 목간에 두 명의 인물이 기재된 것이다. 성산산성 부찰목간에는 2명 이상의 인물이 기재된 목간이 여럿 있다.

일찍부터 가야27(「古随伊骨利村阿那(衆)智卜利古支◎」 「稗發◎」), 가야28(「古随新村智利知一尺那」 「豆兮利智稗石」), 가야1598(「買谷村古光斯玆于」 「稗石」), 가야2051(「買谷村物礼利◎」 「斯玆于稗石◎」) 등이 지적되었고, 특히 구리별목간의 노(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목간(이하 노인목간)이 주목받았다. 구리별목간과 상당수 겹치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노인목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노인목간 일람

목간번호	판독문	서식
진주1288	「仇利伐 德知一伐奴人 ×	지명+인명+노+인명(이하 결순)
가야35	「仇利伐 [只卽智奴 於支負] √」	지명+인명+노+인명+負
가야1613	「仇(利)伐 [比夕智 奴 先能支 負] ◎」	지명+인명+노+인명+負
가야2008	「仇(利)伐 [郝豆智奴人/支負] √」	지명+인명+노+인명+負

31) 이와 관련하여 대단위지명으로 추정되는 지명과 물품만 있는 목간들에 주목해 볼 수 있다[가야1988(「丘伐稗」), 가야2029(「丘伐稗石」), 가야2015(「伊大兮村稗石」), 가야5594(「沙喙部負」)]. 또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다음 세 점의 급별성목간도 단서라 할 수 있다. 가야2004(「及伐城文戶伊稗石」), 가야2005(「及伐城文戶伊急伐尺稗石」), 가야2633(「及伐城文(戶)稗石」)에 공통적으로 及伐城의 文戶伊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군데에만 及伐尺이라는 외위를 기재하고 나머지 둘은 생략하였다. 아마 하나에 급별적을 기재하면 나머지에서 이 기재된 하나를 참고하여 해당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 아닐까.

목간번호	판독문	서식
가야2012	「仇利伐 仇陴知一伐奴人 毛利支負」	지명+인명+노+인명+負
가야1989	× ... (一伐) 奴人 毛利支負」	지명+인명+노+인명+負
가야5593	「仇利伐[夫(及)知一伐奴人/夫巳礼負]」	지명+인명+노+인명+負
가야5592	「丘利伐 [卜今智上干支 奴 / 卍卍巳支 負]」	지명+인명+노+인명+負
가야1987	(1면)「仇伐未那沙刀(礼)奴」	지명+인명+노+인명+패+양(석)
	(2면)「弥次(分)稗石」	
가야5587	(1면)「丘伐未那早尸智居伐尺奴」	지명+인명+노+인명+패+양(석)
	(2면)「能利智稗石」	
가야34	「內恩知 奴人 居助支 負」	인명+노+인명+負
가야1994	「眞余密奴那智石」	인명+노+인명+양(석)
가야36	× 內只次奴須礼支負」	(결손)인명+노+인명+負
가야37	× 比卍須奴/余先利支負」	(결손)인명+노+인명+負

이외에도 인명 부분에 奴자가 들어 있는 것은 가야2023(「及伐城登奴稗石」)이 있지만, 동일한 서식의 급별성 지명 목간들을 볼 때,<sup>32)</sup> 이는 인명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노인목간이 아니다. 이 노(인)에 대해서는 앞에 나오는 인명의 신분으로 보기도 하지만,<sup>33)</sup> 뒷사람의 신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34)</sup> 이미 지적되었던 것과 같이 一伐, 一尺 등의 비간군 외위 소지자가 노(인) 신분으로 보기 힘든 점이 있었는데, 가야5592가 새로이 발견되면서 간군 외위 소지자 뒤에 노가 나오는 사례가 확인되어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만약 노(인)이 앞 인명의 신분이라면, 뒤의 사람은 노가 아니므로 더 신분이 높다고 할 텐데, 이 경우 신분이 높은 사람의 인명이 뒤에 기술되는 것이어서 이상하다.

한편 노(인)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를 공동체 성격을 유지한 집단예속민으로 이해하는 견해와<sup>35)</sup> 앞 사

32) 김해1273(「及伐城(秀)乃巳稗」), 가야41(「及伐城立(龍)稗石」), 가야70(「及伐城只智稗石」), 가야2004(「及伐城文尸伊稗石」), 가야2005(「及伐城文尸伊急伐尺稗石」), 가야2633(「及伐城文(尸)卍稗石」), 가야2630(「及伐城日沙利稗石」)

33) 李成市, 2000, 「韓國木簡연구의 현황과 咸安城山山城 출토의 木簡」, 『韓國古代史研究』 19; 이용현, 2006,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朴宗基, 2006, 「韓國 古代의 奴人과 部曲」, 『韓國古代史研究』 43; 이경섭, 2012, 「新羅의 奴人-城山山城 木簡과 〈蔚珍鳳坪碑〉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68.

34) 윤선태, 1999,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木簡의 用途」, 『震檀學報』 88; 윤선태, 2012,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 荷札의 再檢討」, 『史林』 41; 전덕재, 2007, 앞의 논문; 金昌錫, 2009, 「新羅 中古期の 奴人과 奴婢-城山山城 木簡과 「鳳坪碑」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54; 이수훈, 2014, 「6세기 新羅 奴人の 성격-〈蔚珍鳳坪新羅碑〉와 〈城山山城木簡〉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2.

35) 대체로 노(인)을 앞 사람의 신분으로 이해하는 논자들이 이 입장에 있다(李成市, 2000, 「韓國木簡연구의 현황과 咸安城山山城 출토의 木簡」, 『韓國古代史研究』 19; 이용현, 2007, 「함안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負, 本波, 奴人 시론」, 『신라사학회 제67차 학술발표회 발표문』; 朴宗基, 2006, 「韓國 古代의 奴人과 部曲」, 『韓國古代史研究』 43; 이경섭, 2012, 앞의 논문). 또 뒷사람의 신분으로 보는 견해 중에서 앞사람이 공권력에 의해 노인의 관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이해하여 이러한 주장을 한다(金昌

람의 사적 예측인 곧 사노비로 이해하는 주장으로 나뉘어 있다.<sup>36)</sup> 노(인)은 「蔚珍鳳坪里新羅碑」에 나오는 大奴村 등의 용어를 고려할 때, 집단예속민의 성격이 존재했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성산산성 목간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앞서 사람과 뒷사람이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이에 두고 이어지고 있어, 이 둘이 개인 대 개인으로 일정한 관계가 지어져, 하나의 조합으로 묶여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37)</sup> 이를 볼 때, 노(인)는 단순히 뒷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목간에서 두 사람의 역할은 뒤에 나오는 負와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負는 이 목간이 부착된 집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노(인)은 다른 부찰목간들의 일반 인명과 같이 이 負 자체에 관계된 인물 본인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은 문제는 이 負와 앞 사람, 곧 노(인)이 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던 인물, 아마도 노(인)의 주인이 이 목간에서 어떤 역할인가 하는 것이다.

이 두 명이 공동으로 負를 납입했다고 보기도 하지만,<sup>38)</sup> 노(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앞의 사람은 뒷사람에 대한 정보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며, 이 하찰의 負와 직접 관련이 있기보다는, 앞의 지명처럼 부와 관련된 인물 곧 노(인)에 대한 정보로서 목간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39)</sup> 결국 노인목간 역시 두 명의 인명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찰목간들처럼 하나의 인명을 적은 것이라 하겠다.

만약 노(인)에 대한 이상의 추론이 타당하다면, 2명의 인명이 기재된 다른 부찰목간의 인명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다. 일반적으로 노인 기재가 없이 인명이 두 개 적시된 경우, 두 인물은 해당 목간에서 대등한 관계이면서 목간이 부착된 집과 관련하여 동일한 역할이라고 이해해 왔다. 예컨대 두 사람이

錫, 2009, 「新羅 中古期の 奴人과 奴婢-城山山城 木簡과 鳳坪碑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54; 이수훈, 2014, 「6세기 新羅 奴人の 성격-(蔚珍鳳坪新羅碑)와 (城山山城木簡)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2). 이 견해는 기본적으로 울진봉평리신라비에 나오는 노인촌 용어를 바탕으로 노인이 원래 집단적 예속민이어서 집단적 지배를 받는 존재들로 파악하고 있다.

36) 이러한 입장은 노(인)을 뒷사람의 신분이자, 앞서 사람과 뒷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이해한 것이다(윤선태, 2012, 앞의 논문; 전덕재, 2008, 앞의 논문).

37) 노(인)을 공동체적 예속민으로 보는 경우에도, 두 사람이 하나의 조로 짝지어져 함께 輸役을 담당했다거나(金昌錫, 2009, 앞의 논문), 함께 공동납의 형태로 세금을 납부했을 것으로 보거나(이경섭, 2012, 앞의 논문), 앞서 사람이 부담한 세금을 운반하는 역할에 노인이 동원되었다고 추정하는 견해(이수훈, 2014, 앞의 논문) 등, 두 사람이 1:1로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고는 보고 있다. 나아가 성산산성 목간 단계에서는 노(인)에 대한 지배가 공동체적 지배에서 개별 인신적 지배로 전환되고 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金昌錫, 위의 논문).

38) 윤선태는 노인은 아니지만 가야28 등에서 외위 소지가자 일반인과 함께 稗-石을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외위 소지가자 연령 등급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윤선태, 2012, 앞의 논문).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노인목간의 세 부담 역시 유사한 양상을 상정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경섭은 앞의 사람을 노인으로 보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1인분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았다(이경섭, 2012, 앞의 논문).

39) 이재환, 2018,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荷札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 『韓國史研究』 182에서는 노를 사노비로 본 후, 앞의 주인을 대신해 役을 온 노비로 파악하였으며, 대단위지명에서 보내온 하물의 수신자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목간에 기재된 인명에서 주된 것이 뒤의 인명이고, 앞은 뒷사람에 대한 정보의 일종이라고 본 것이어서, 필자의 견해와 통하는 부분이 있다.

공동으로 1인분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노인목간에서 앞 사람이 단순한 정보로서 기재된 것이라면, 노(인) 기재가 없이 인명이 2개 나오는 경우 역시 동일한 양상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목간들이 주의를 끈다.

[가야28] (1면)「古陲新村智利知一尺那」 (2면)「豆兮利智稗石」

[가야2028] 「玆得智 (仇)以稗石」

[가야2018] (1면)「仇伐阿那内買子」 (2면)「一支買 稗石」

[가야1598] (1면)「買谷村古光斯玆于」 (2면)「稗石」

[가야2051] (1면)「買谷村物礼利」 (2면)「斯玆于稗石」

가야28의 경우 智利知一尺은 확실히 하나의 인명이지만, 뒤의 ‘那豆兮利智’는 어떤 구성인지 명확하지 않다. 那를 那村으로 보면 ‘지명+인명’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의 부찰목간에 서로 다른 소단위지명을 가진 두 인명이 나온 사례가 없기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여겨진다. ‘那豆兮利智’가 하나의 인명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목간의 서사 양상을 보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1면은 아래 빈 공백이 없을 정도로 꽉 채웠지만, 2면은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사진 5). 만약 하나의 이름이었다면 이를 나누어 앞뒤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명+인명’이었으면 뒷사람의 정보인 지명을 굳이 공간이 부족한 앞면에 쓰기보다 뒷면에 이름과 함께 적지 않았을



사진 5. 가야28 적외선사진(『고대목간II』, pp.42-43)



사진 6. 가야2028 적외선사진(『고대목간II』, p.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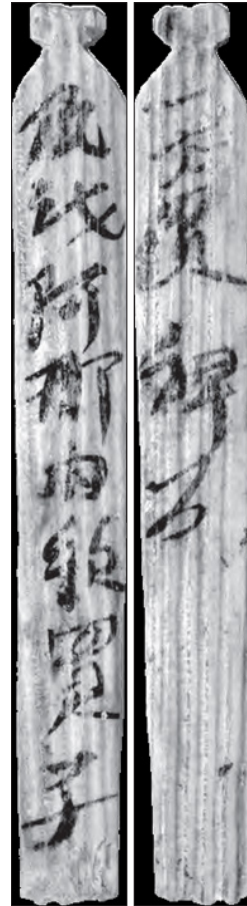


사진 7. 가야2018 적외선사진(『고대목간II』, pp.250-251)

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智利知一尺(인명)+那[ ]+豆兮利智’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형식은 노인목간들의 인명 표기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의미는 알 수 없으나 노인(인)처럼 두 인명의 관계를 나타내는 那[ ]이라는 표현을 상정할 수 있다면, 이 목간 역시 負와 직접 연관된 인명이 들어있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가야2028도 유사하다. 인명으로 보이는 ‘弥得智’ 뒤에 판독하기 힘든 한 글자가 더 있고, 공격을 두고 인명으로 추정되는 (仇)이가 나온다(사진 6). 무슨 글자인지 알기는 힘드나 앞뒤 인명의 관계를 보여주는 글자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야2018 역시 동일한 형식이었다고 생각된다. ‘內[ ]買子一支買’가 하나의 인명일 가능성도 있지만 너무 긴 감이 없지 않으며, 역시 면을 바꾸어 기재한 것을 염두에 두면 ‘內[ ]買子’와 ‘一支買’로 나누어진다(사진7).<sup>40)</sup> 그런데 1면의 마지막 글자는 ‘子’로 이는 대표적인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므로, ‘內[ ]買+子+一支買’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너무 과감한 추론을 하는 것 같은 두려움은 있지만, 비교적 글자가 분명히 남아있기에 그 가능성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추론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성산산성 목간들에 나오는 두 개의 인명은 기본적으로 뒤의 인명이 짐과 관련하여 중심적 정보가 되는 사람이며, 앞의 인명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로서 기재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부찰목간에 앞의 사람을 기재해야 했을까. 이와 관련한 단서는 가야1598과 가야2054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두 목간은 모두 買谷村이라는 동일한 지명 아래 ‘인명+稗+石’의 서식을 가지고 있다. 나무판의 형상은 다르지만 서체가 거의 동일하여 한 사람이 두 목간을 모두 썼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인명이 각각 ‘古光斯玆于’와 ‘物礼利斯玆于’로 되어 있는데 뒤의 세 글자가 ‘斯玆于’로 동일하다. 이들이 각각 5자, 6자로 된 이름을 가진 다른 인물들일 가능성도 있고, 각각 ‘古光+斯玆于’와 ‘物礼利+斯玆于’로서 지명+인명 혹은 인명+인명일 가능성도 있다.<sup>41)</sup>

현재로서는 이것들의 구성이 어떤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들이 동일한 서사자에 작성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비슷한 시기에 작성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이 둘이 구분되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사진우’라는 동일한 이름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 주는 정보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이 앞에 나오는 정보가 아닌가 한다. 현재로서 앞의 정보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가야2018이나 노인목간을 염두에 두면 인명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며, 사람을 구분해 주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상 구분되는 일정한 정보였을 것이다.

가야2018의 경우 앞의 사람은 가족관계상 목간에 기재된 인물의 아버지이겠지만, 장부와의 대조 등에

40) 『韓國木簡字典』에서는 ‘內欣買子/一(石)買稗石’으로 판독하였고, 박남수는 이 판독을 근거로 ‘內欣이 매입한 것이 一石인데, 이는 買麥(稗의 오기?) 1석’으로 해석하였다(박남수, 2017, 앞의 논문, p.58).

41) 이재환은 이들이 각각 두 개의 이름으로 구성되었고, 뒤에 나오는 斯玆于는 한 사람으로 보았다. 나아가 사진우가 앞의 두 사람에게 고용되어 그들의 일을 대신 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두 목간이 시간차를 두고 따로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필요한 행정상 정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당 인물이 속한 戶의 戶主라 볼 수 있다. 즉 복수인명목간의 인명 기재 서식은 아마 ‘호주명+관계+인명’의 서식이 아닐까 여겨진다. 노인목간 역시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노인의 주인이어서라기보다, 장부와 목간을 대조하여 검수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노가 속한 호의 호주 이름을 적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찰목간에 기재되는 인명은 원칙적으로 호주를 기준으로 했을 것이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겠다.<sup>42)</sup> 노인목간의 경우 반드시 두 개의 인명이 나오는 이유 역시 노인이 호주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구리별목간을 중심으로 성산산성 부찰목간의 지명과 인명 기재방식을 분석해 보았다. 이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성산산성 부찰목간의 서식을 정리·복원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산산성 부찰목간 전체의 서식상 특징을 생각해 보겠다.

우선 기본적인 성산산성 부찰목간의 서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집의 내용물인 물품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과 관련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 ‘(대단위지명+소단위지명+인명(+관등)’이 기본적인 서식이라고 하겠다. 성하목간을 통해 대단위지명과 소단위지명 사이에 下+물품명이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단위지명은 단순히 인명의 거주지나 관적지 정보에 머물지 않고, 이 목간들이 매달려 있던 집이 모이는 곳이면서 성산산성으로 물품을 발송하는 거점으로서 목간에 기재되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下+물품명’은 일반적으로 생략되었다는 것을 구리별목간을 비롯한 대단위지명이 나오는 목간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인목간을 비롯해 두 인명이 기재된 목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찰목간의 주요 정보는 뒤에 나오는 인명이며, 앞의 인명은 호주에 해당하는 존재로 여겨지는데, 뒷사람에 대한 정보로 목간에 기재되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부찰목간은 호적과 같은 장부를 근거로 하여, 호별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목간이 부착된 집 역시 개인별로 구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성하목간과 구리별목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산산성 부찰목간에서 지명과 인명은 집과 관련한 특정 한 인물에 대한 정보로서 기재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대단위지명+소단위지명+호주명+인명’의 서식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대단위지명’의 경우 인명에 대한 정보만의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집과 관련된 정보이기도 하다.

그런데 목간에서 지명과 인명에 대한 정보는 거의 생략하지 않지만, 물품에 대한 정보는 거의 대부분,

---

42) 한편 이러한 인명 기재 서식이 맞고 이 집의 내용이 세물이라고 한다면, 이 세물은 호를 기준으로 수취하는 戶調라 보기는 힘들다. 노가 따로 납부를 하고 있어 개별 丁에게 부과하는 세목[丁租]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신라 세제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추후를 기약한다.

나아가 아예 완전히 생략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행정단위 혹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목간에 필수적이지만, 물품 정보는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관계자들이 당연히 알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부찰목간이 부착되어 있던 짐의 성격을 아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일단 기재방식과 서식에 집중하였기에 관련한 검토를 더 하지는 못했는데, 추후의 과제로 돌린다.

투고일: 2019. 3. 31.

심사개시일: 2019. 4. 30.

심사완료일: 2019. 5. 25.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韓國의 古代木簡Ⅱ』.
- 國立加耶文化財研究所, 2011, 『韓國木簡字典』
- 『三國史記』 『三國遺事』
-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編, 1978, 『睡虎地秦墓竹簡』, 文物出版社(윤재석 옮김, 2010, 『수호지진묘죽간 역주』, 소명출판.
- 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 2006,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 下冊』, 中華書局(김택민·하원수 주편, 2013, 『천성령 역주』, 혜안).
- 『養老令』(井上光貞 等校注, 1976, 『律令』 岩波書店).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 2009, 『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5, 『함안 성산산성 木簡 발굴에서 보존까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북천박물관, 2016, 『선사와 고대 목기·목간의 최신 연구 현황과 과제』.
- 권인한, 2018, 「신출토 함안 목간에 대한 언어문화사적 연구」, 『木簡과 文字』 21.
- 김재홍, 2005, 「함안 성산산성 목간과 촌락사회의 변화」, 『國史館論叢』 106.
- 金昌錫, 2009, 「新羅 中古期の 奴人과 奴婢-城山山城 木簡과 『鳳坪碑』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54.
- 김창석, 2016, 「함안 성산산성 木簡을 통해 본 新羅의 지방사회 구조와 수취」, 『百濟文化』 54.
- 김창호, 1998,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에 대하여」, 『咸安 城山山城 I』,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金昌鎬, 2018, 「咸安 城山山城 木簡의 新考察」, 『文化史學』 60.
- 박남수, 2017,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新羅史學報』 40.
- 朴鍾益, 2000, 「咸安 城山山城 發掘調査와 木簡」, 『韓國古代史研究』 19.
- 박현정, 201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개요」, 『木簡과 文字』 22.
- 윤선태, 1999,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木簡의 用途」, 『震檀學報』 88.
- 윤선태, 2012,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 荷札의 再檢討」, 『史林』 41.
- 윤선태, 2016, 「한국의 고대 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선사와 고대 목기·목간의 최신 연구 현황과 과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북천박물관.
- 윤선태, 2017,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의 연구 성과와 전망」, 『韓國의 古代木簡Ⅱ』,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李京燮, 2003, 「咸安 城山山城 木簡의 研究現況과 課題」, 『新羅文化』 23.
- 이경섭, 2012, 「新羅의 奴人-城山山城 木簡과 〈蔚珍鳳坪碑〉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68.
- 이경섭, 2013,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 연구의 흐름과 전망」, 『木簡과 文字』 10.
- 李成市, 2000, 「韓國木簡연구의 現況과 咸安城山山城 출토의 木簡」, 『韓國古代史研究』 19.
- 이수훈, 2014, 「6세기 新羅 奴人の 성격-〈蔚珍鳳坪新羅碑〉와 〈城山山城木簡〉을 중심으로-」, 『한국민족 문화』 52.
- 이용현, 2007, 「함안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負, 本波, 奴人 시론」, 『신라사학회 제67차 학술발표회 발표문』.
- 이재환, 2018,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荷札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 『韓國史研究』 182.
- 전덕재, 2007,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내용과 증고기 신라의 수취체계」, 『역사와 현실』 65.
- 전덕재, 200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新羅文化』 31.
- 전덕재, 200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木簡과 文字』 3.
- 전덕재, 2018, 「7세기 백제·신라 지배체제와 수취제도의 변동」, 『新羅史學報』 42.
- 정현숙, 2017,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서체」, 『韓國의 古代木簡Ⅱ』,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주보돈, 2000,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의 基礎的 檢討」, 『韓國古代史研究』 19.
- 주보돈, 2008, 「한국 목간 연구의 현황과 전망」, 『木簡과 文字』 創刊號.
- 최장미, 2017,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木簡과 文字』 18.
- 홍승우, 2015, 「목간 자료로 본 백제의 籍帳 문서와 수취제도」, 『韓國古代史研究』 80.
- 홍승우, 201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물품 기재방식과 성하목간의 서식」, 『木簡과 文字』 21.
- 戴衛紅, 2018, 「간독과 문서로 본 중국 中古 시기 지방 징세 체계」, 『木簡과 文字』 21.
- 榮新江·文欣, 김창석 역, 2015, 「새로 발견된 漢字-호탄 문자의 이중언어 목간」, 『江原史學』 27.
- 馬場基, 2008, 「古代日本の 荷札」, 『木簡과 文字』 2.
- 馬場基, 2008, 「荷札と荷物のかたるもの」, 『木簡研究』 30.
- 烟中彩子, 2018, 「목간群으로서의 성산산성 목간」, 『木簡과 文字』 21.

〈Abstract〉

A Study on the form of text written on the wooden tablets excavated from the Seongsan Mountain  
Fortress in Haman; Focusing on the records of Place and People

Hong, Sueng-woo

This paper is a second work to clarify the nature and the purpose of Silla Dynasty's wooden tablets attached to the luggage excavated from the Seongsan Mountain Fortress ruins in Haman. This time I looked at the records of Place names and names of the people. In particular, mainly analyzed the set of Guribeol wooden tablets.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It seems that the standard format for place name is 'High-level local administration unit+basic local administration unit' and it must be the registration address of a person written after the place names. But it is noted that the High-level unit is not only the registration address but also the place where the luggage was shipped.

The second, In the case of multiple names of person written on some wooden tablets including Noin wooden tablets, It turns out that not both of them are related to the luggage actually. The person whose name is written in front is the head of family and it was recorded for verifying the exact identity of the owner of the luggage whose name is written below.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place name and the name of the person are listed as information on the specific person related to the luggage, maybe the owner. And the standard format of it was 'High-level local administration unit(departure place of the luggage)+basic local administration unit(address of owner)+Head of Family+Owner's name'.

▶ Key words: Seongsan Mountain Fortress, wooden tablets attached to the luggage, form of text, Guribeol wooden tablets, Noin wooden tablets